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

- 7.1.~7.10.(10일간) 끼임사고 발생 반복 사업장 등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긴급히 확인하여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 ☑ 최근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주요 사례

- ❖ '26.5.30. 경남 김해시 골판지 제조 사업장에서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오일 도포 중 신체가 끼임
- ❖ '26.6.10.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 사업장에서 운행 중인 팬닝벨트에 손이 말려 들어감
- ❖ '26.6.11.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점검 중 롤러컨베이어 끼임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한편, 법 위반 확인시 시정지시, 과태료 조치를 비롯하여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하여 끼임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철준 지청장은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위험을 의식하면서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이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 위험부 방호조치 등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OPS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정태 (02-950-9810)
		담당자	근로감독관	허유진 (02-950-9833)



안전한 제조업 일터를 만드는 필수 안전수칙 !



정비·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LOTO)



방호장치 해체 금지



회전부 덮개 설치